

2011. 10. 25.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#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

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KDI's 40th Anniversary  
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:  
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

- 기간: 2011년 10월 24(월) ~ 25(화)
- 장소: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(B1)
- 주최: KDI(한국개발연구원)

###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#### 세션 4. 정부-기업간 관계 및 기업지배구조

[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]

[랜달 모크 앨버타주립대학교 석좌교수]

- 선진국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농업분야에서 산업분야까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한 반면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간 유기적 연계가 아닌 몇 개의 주요 산업발전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함.

- 아울러 다른 개도국들과는 달리 해외원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정부 보증에 바탕한 해외차관도입형태로 경제발전 노력을 기울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대마불패 신화를 창조함.
- 재벌은 전두환 정권에서 정부의 지원을 믿고 재벌왕국을 강화하면서 정치자금 등을 통해 정치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게 됨.
  - 87년 민주화 이후 IPO(기업공개)를 통해 재벌들의 기업지배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나 기업지배구조는 부채에 의한 성장이었으며 지속적인 금융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됨.
- 한국 재벌 시스템은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시절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는 비효율적이며,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.
  - 1920년대 재벌 집중 문제에 봉착한 미국은 재벌 유지에 불리한 조세제도 도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영국은 연기금이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규제했음.

[토론: 로렌스 크라우스 UC 샌디에고 명예교수]

- 기업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되 기업에 도덕 나침반(Moral Compass)이 있다면 기업의 근로자, 정부,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기업운동을 할 것이며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음.
- 사외이사들은 이러한 도덕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업 내 독립적인 감사팀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.
- 기업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아울러 지배구조가 좋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다른 기업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.

[토론: 버나드 영,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영대학 학장]

- 재벌 기득권화와 관련해, 당시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였다면 현재와 같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, 재벌의 기득권화가 과연 나쁘기만 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움.
-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슈퍼터의 논리는 더욱 유효해 보이며 재벌들의 족벌경영은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 많은 연구에 따르면 족벌경영은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- 상속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, 재벌의 상속화를 무조건 적으로 부정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음.
- 위기 조정 과정과 단계는 여러 정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, 많은 연구에 의하면 금융 자유화는 자원의 배분, 소득재분배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음.